

일본 昭和期 國民育成 연구

-『修身書』 IV・V기를 중심으로-

李 鉞 菴*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쇼와기 시대상황과 수신교육
 - 2-1. 쇼와기와 수신서
 - 2-2. IV・V기수신서의 특징과 유형
3. 생활덕목에 나타난 국민육성의 이중성
 - 3-1. 개인생활의 자주성과 비자주성
 - 3-2. 가정생활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 3-3. 학교생활의 계몽성과 반계몽성
 - 3-4. 사회생활의 시민성과 반시민성
 - 3-5. 국가생활의 국민성과 신민성
 - 3-6. 천황주의와 신민적 국민
4. '좋은 일본인'적 기호를 통한 '황국신민 만들기'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쇼와(昭和)기에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IV기 『尋常小學修身書』¹⁾(1~6권), V기 『ヨイゴトモ』(上~下)·『初等科修身』(1~4권)(앞으로 '수신서'라 칭함) 등, 총12권에 이르는 수신서를 통해 전시체제에서 근대 일본인의 양성과 육성, 즉 '황국신민 만들기'에 따르는 국민육성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있다.

* 서남대학교 교양교직과 조교수 일본학

- 1) 본 연구에서는 1990년 東京 大空社에서 복간된 저본인 다음 표에 나타난 것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후 『修身書』의 표기 방법은 (기수)-(권수=학년)-(과수)의 순서로 하되, IV기-卷四-5과의 경우는 <IV-(4)-5>로, V기-ヨイゴトモ(上)-15과는 <V-(ヨイゴトモ(上))-15>로, V기-권2-15과는 <V-(권2)-15>로 표기하도록 한다. 특히 V기의 1, 2학년의 책권수는 ヨイゴトモ(上・下)이며, 3~6학년의 경우는 권1~4이다.

이 IV·V기 수신서 연구의 방법으로는 나카무라 기쿠지(中村紀久二)²⁾와 가이고 도키오미(海後宗臣)·나카 아라타(仲新)³⁾의 분류와 분석을 참고로 하였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 모두 형식적인 분류와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분류방법을 기본으로 취하면서 국민육성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국민성을 도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인생활덕목’, ‘가정생활덕목’, ‘학교생활덕목’, ‘사회생활덕목’, ‘국가생활덕목’, 그리고 ‘천황주의’라는 분석 방법을 제시⁴⁾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각 기수별 ‘주제수’와 그 주제수가 교과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를 동시에 제시하며, 아울러 수신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덕목의 분류와 방법에 따라 IV·V기 수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생활덕목에 나타난 덕목별 수신교육과 변화양상이 전시하에 ‘황국신민 만들기’를 통한 국민육성으로 어떻게 일반화되어 갔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신서가 고도화된 천황제 이데올로기적 국가통치와 전시체제, 超國家主義⁵⁾가 황국신민 만들

시기별 教科書	학 년(卷)	使用開始年度
I 期 「尋常小學修身書」卷1~4 「高等小學修身書」高等一~二	卷1~4(卷1은 教師用과 掛図 高等1~2(5~6학년 해당))	1904(明治37)年
II 期 「尋常小學修身書」	卷1~6	1910(明治43)年
III 期 「尋常小學修身書」	卷1~6	1918(大正7)年
IV 期 「尋常小學修身書」	卷1~6	1934(昭和9)年
V 期 「ヨイコドモ」「初等科修身」	上~下, 卷1~4	1941(昭和16)年

- 2) 나카무라 기쿠지(中村紀久二)는 『復刊 國定修身教科書 解説』에 따른 분류에서 제 I 기 수신서의 편찬 방침에 따라 덕목을 ‘學校’, ‘家庭’, ‘社會’, ‘個人’ 및 ‘國民의 心得’과 ‘總括’로 나누었다. 또한 그는 대체적으로 각 학년에 동일한 덕목을 반복하는 ‘環狀敎案’에, 학년의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생활영역에 따른 덕목을 점차 배당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수신서의 심사위원회와 나카무라의 분류방법이기도 하다. 中村紀久二.(1990), 『復刊 國定修身教科書 解説』, 日本東京: 大空社, p.68
- 3) 가이고 도키오미(海後宗臣)·나카 아라타(仲新)는 『近代日本教科書總說-解説篇』에서 수신서의 덕목을 생활영역에 따라 ‘學校에서의 心得’, ‘個人에 있어서의 心得’, ‘家庭 및 社會에서의 心得’, ‘國民으로서의 心得’으로 분류하고, 학년마다 생활영역을 확대하여 배열했다. 仲新·海後宗臣.(1969), 『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説篇』, 日本東京: 大日本人刷株式會社, p.103
- 4) 필자가 제시한 덕목 중에 ‘천황주의’라는 관련 덕목은 나카무라 기쿠지(中村紀久二)나 가이고 도키오미(海後宗臣)가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천황주의’와 관련된 덕목을 不敬차원에서 누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황제를 들어 내놓고 이데올로기 강화교육을 했다는 의도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모두 분석 방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수신서의 전체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천황제 지배체제이며, 이들이 ‘國民의 心得’으로 종합화시켜 다룬 부분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생활덕목’과 ‘천황주의’를 따로따로 구별하여 분석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각 생활덕목도 보다 명확한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학년별 단원의 주제수와 주제어를 모두 색인하였고, 그것이 교과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아울러 인용하였다.
- 5) ‘國家主義’는 메이지 이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통해 서구의 개방과 압력으로부터 자주국가라는 기치 아래 일시분란한 국민적 정신을 강조하는 정치지배체제의 구조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의 자긍심과 국민성의 결집은 메이지의 근대화가 성공한 이후 청일·러일전쟁의 승리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1930년을 전후로 하는 보수우익의 득세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는 시기는 이전의 ‘국가주의’와는 양상이 다른 신국일본과 국제사상의 강조로 말미암아 ‘超國家主義’적 경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국가주의’와 ‘초국가주의’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구나 필자는 IV·V기의 시대

기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도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적 분석과 방법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日本人論(=일본인의 성격형성, 일본민족성의 형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 등 근대일본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2. 쇼와기 시대상황과 수신교육

2-1. 쇼와기와 수신서

쇼와기의 수신정책은 세계공황에 따른 일본 경제의 불황, 국내정치적인 환경과 변화 그리고 대외침략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29년의 세계공황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과잉생산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이후 4년여 동안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강대국들은 무역을 국가통제와 관리 하에 두는 한편, 해외에 시장을 두는 식민지정책의 강화로 나아갔는데, 이것은 군사화를 통한 경제의 극복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1930년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거의 30%에 이르렀으며, 생사·면제품 등 경공업 제품이 주요수출품이었다. 이중 생사류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90%를 차지하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쇼와공황은 일본 자본주의의 구성요소인 3개의 고리(재벌자본·기생지주제·식민지)의 강력한 재편성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빠른 일본경제의 경기회복과 무역확대는 대외침략을 전제로 한 경제의 군사화 혹은 수출가격의 저하를 수출량의 증대를 통해 보충한 것이었다.⁶⁾ 당시 우파세력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일본정신·일본주의를 내세워 민족 배외주의 등 민족주의 우익운동으로 나아갔고, 자치농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구제 청원운동도 일본정신·황실중심주의를 내걸었으며 과시증적인 체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되어 대외침략의 기반이 되었다.⁷⁾ 이후 일본은 1931년 류조호(柳條湖) 만철사건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하여 15년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은 15년의 전시체제기간 동안 잔인한 침략행동과 더불어 여러 민족간의 모순을 정책적으로 이용하여 저항운동을 억누르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의 민족 우월의식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하였다. 15년의 중국 침략전쟁은 일본자본주의의 기반을 흔들었고, 천황제 국가체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와 군부는 중국이나 동아시아·태평양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일본국내의 노농운동은 물론 모든 반전·평

가 '초국가주의'에 해당하는 시기로 보았기에 본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6) 上原一慶·桐山昇·高橋孝助·林哲共著, 한철호·이규수譯(2003),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pp.139~41 참조.

7) 같은 책, p.142 참조.

회활동을 탄압하였다. 1937년 9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되어, 현인신(現人神) 천황의 나라인 ‘神國日本’과 ‘일본정신’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와 보국을 부르짖는 정치·사회단체 등이 나타났고, 군인과 우익이 득세하였다. 그들은 천황의 나라인 신국과 보국을 내세워 국민을 침략전쟁에 이용하였으며, 식민지에서는 철저한 민족 배외주의에 바탕을 둔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경우 ‘內鮮一體’를 내세워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였으며, 노동력의 부족으로 강제징용과 연행을 실시하여 제국주의 식민지배체제를 강화해갔다. 이것은 식민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도덕은 철저히 ‘과시즘적 지배체제’에 해당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IV·V기의 수신서 개편과 수정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였으며, 보다 강렬한 천황제 지배체제와 멸사봉공의 충효사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쇼와기에는 식민지배체제와 전시체제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이전의 ‘부국강병론’과 ‘문명개화론’으로부터 ‘국민정신개조론’이나 ‘근로주의’가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체명징’이 가속화되고 국체=천황제 지배체제에 따르는 황국신민의 양성과 육성이 뒤따랐으며, ‘근로주의’를 강력히 요구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수신서에서는 근대천황제에 적합한 멸사봉공의 ‘황국신민 만들기’를 위해 전시적 윤리도덕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고, 과시즘 체제에 순응할 근대인의 양성을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시켰다.

2-2. IV·V기 수신서의 특징과 유형

IV·V기 수신서는 「교육칙어」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72년 「학제」가 발표되고, 1879년 「교학성지」 이후 도덕에 관한 여러 논의와 더불어 학교도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문명론에 근거한 덕육」, 「종교주의에 따른 덕육」, 「鍛鍊主義에 관한 덕육」, 「윤리학이나 자연과학의 원리에 근거한 덕육」⁹⁾ 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칙어의 전체적인 정리는 결국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¹⁰⁾가 기초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교육칙어는 황국사관의 입장에서 교육의 기본원리와 실천도덕을 규정한 모델¹¹⁾이 되었다. 교육칙어에는 국무대신의 副書가 없기 때문에 천황의 발의에 의한 聖旨

8) 吉田熊次.(1930), 『教育勅語釋義』, 東京: 弘道館, p.2 참조

9) 中村紀久二.(1990). 같은 책, pp.108~9 참조

10)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1844~85)는 메이지 시대 관료이자 정치가이다. 메이지 5(1872)년 渡歐하여 사범제도를 배웠으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대일본제국헌법, 황실전범, 교육칙어 등을起草하였다. 후에 추밀원고문관을 지냈으며, 메이지 26년에 문부상이 되었다.

11) 교육칙어의 내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개국 이래 천황의 인덕과 신민의 충효에 의해 성립된 國體를 설명하고, 여기에 교육의 연원이 있다고 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법의 존중·준수를 중핵으로 한 구체적 덕목을 열거하고, “만일 위급한 일이 있거든 충의와 용기로 봉사하는 것은 천지무궁한 皇運을 돕는 일이다”(一但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テ天壤無窮の皇運ヲ扶翼スヘシ)고 맺고

로서, 1945년 패전까지 모든 법령을 초월한 절대적 권위로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배하였고, 교육정책이나 국가체제의 기본 방침이 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일본은 근대 천황제를 위한 법적 마련과 더불어 정신적 지배체제로서 유교윤리의 특성을 띤 교육칙어를 敎育綱領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修身教科用圖書檢定標準』에 준거한 수신서를 편찬하여, 문부성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배포하였다. 쇼와기에는 교육칙어가 더욱더 강조되고, 교육칙어와 함께 별도로 하사한 천황과 황후의 사진(御眞影)을 조회 시간이나 각종 기념행사(천황과 관련된 국가 의례)에 기미가요(君が代)·히노마루(日の丸)와 함께 법적으로 ‘봉독, 암송¹²⁾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천황중심의 臣民교육’으로 바꿔 나갔다. 따라서 교육칙어는 『수신』이나 『국사』의 교과목에 포함되어 교과내용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그 자체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칙어는 매 학년 반복되는 ‘덕목주의’ 배열 원칙에 따라 訓言이나 格言 그리고 齣話나 神聖性이 가미되어 근대천황제에 합당한 천황에 대한 충성과 충군애국을 강조하였다. 교육칙어가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편찬의도에 따라, 수신서는 국민사상과 국민도덕교육의 지표가 되었다.

그런데 IV·V기 수신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IV기에는 대동아공영권에 근거한 사회나 국가, 황실과 관련된 국제사상이 두드러져 나타난다. 그러나 V기는 소학교 개정으로 인해 수신서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아동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한 문학적 표현의 경향이다. 그리고 수신서는 ‘팔굉일우’의 국제사상과 전시체제에 합당한 의식의 강조와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보다 강조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군대교과서적 특징을 띠고 있다.

3. 생활덕목에 나타난 국민육성의 이중성

3-1. 개인생활의 자주성과 반자주성

근대일본의 국민성 형성에 있어 개인의 덕목이나 행위는 서구의 근대적 사고와 행위를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것들이 東西古今에 통용되는 보편타당성 있는 원리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칙어는 천황제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었고, 실천도덕으로 삼는 교과서가 수신교과서이며, 이것은 패전까지 법률을 뛰어넘는 절대적 권위를 지녔다. 이병담.(2003), 「일본 明治·大正期」의 수신교과서 연구-국민의 의식형성으로서 천황제와 근대적 어련이-, 『일본문화학보』 11집. pp.287~9 참조.

12) IV기 수신서의 서두에 편집된 구성은 저학년의 경우 국체와 천황행렬, 황대신궁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고학년의 경우 교육칙어를 전부 수록하였다. 그리고 V기수신서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문학적인 교재의 개정으로 인해 바뀌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교육칙어」와 「청소년학도에 하사하신 칙어」를 편집하여 암송하게 하였다.

가진 근대인에 맞춰져 있다. 서구의 근대인의 육성이 개인적인 가치관과 정신의 함양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일본의 근대인 육성은 국가의 외적인 작용을 통한 근대인이라는 성격이 강하다.¹³⁾ 왜냐하면 서구의 이동이 근대적 학교나 제도 등의 규범에 의해 통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립적인 의지와 능력이 수반된 반면에, 근대일본의 경우 이동은 근대적 사고로 나가기 이전에 ‘臣民’이라는 타율적이고 상하계급적 구조에 이미 포섭되고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생활과 관련된 덕목이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음의 <IV-(3)-5>의 「열심히 일하자」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긴지로(金次郎)가 사는 마을 경계를 흐르는 강은 가끔 홍수가 나서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에는 어느 집이나 한 사람씩 나와 매년 하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긴지로도 나이는 어리지만 이 하천보수공사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힘이 부쳤기 때문에 어른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일을 마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이 끝나 집에 돌아오자 밤늦게까지 앉아서 짚신을 지어, 이튿날 아침 그것을 일하는 장소로 가지고 가서, “나는 아직 한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답례입니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긴지로는 다른 사람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흙이나 돌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어른보다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긴지로는 집안일도 잘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부터 산에 가서 땀나무를 하고, 나무를 해서 그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밤에는 새끼를 꼬거나 짚신을 지어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돕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IV-(3)-5> 「しごとにはげめ」¹⁴⁾

이 예문은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의 근면한 생활과 효행 등의 내용을 통해 개인의 자주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3학년 아동에게 청년이상의 근로와 효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긴지로는 등장인물로 나오는 다른 주제에서도 개인의 자주적인 행동의 변화나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 봉사하거나 천황을 위해 존재해야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반자주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덕목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이데올로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개인생활덕목과 관련한 자주적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13)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개혁은 미카미 가즈오(三天一夫)가 말한 “일본의 근대화의 노선은 ‘아래로부터’의 봉건제의 전면적·본격적인 파기의 길(=혁명적인 길 즉 프랑스형의 길)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타협적인 길(=프러시아 형의 길)로 명확하게 위치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三天一夫(1986), 『日本近代化の研究』-福井縣下の動向を中心に-, 文獻出版, p.7 참조

14) 본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의 拙譯이며, 출처는 지면초과로 생략한다.

<표1> <IV·V기 ‘개인생활덕목’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15)

시기 구분	제 IV 기						제 V 기						총주제수(765) 총주제어(6208)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권I (上)	권I (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같은 자만하지마라				1(3)									1(3)	0.13(0.05)
공부. 면학. 학문. 지식	1(2)	(1)	1(11)	1(19)	1(28)	(18)			1(1)	(6)	(5)	(2)	5(18)	0.65(1.66)
과실. 실수. 남의실수 용서	1(1)	2(8)											3(9)	0.39(0.14)
공리. 연구. 고안. 창조. 생각		1(4)		1(6)		1(8)		2(2)	2(2)	1(5)		(2)	8(3)	1.05(0.35)
규율. 규칙. 시간. 약속	1(1)	1(8)	1(4)	1(8)		(4)	1(1)	1(1)	1(8)			1(1)	8(36)	1.05(0.38)
근검. 검약. 절제. 물건소중	1(1)		2(8)		1(18)							(4)	4(31)	0.52(0.50)
근면. 근로	(1)	1(16)	1(14)	1(13)	1(3)	1(4)		(1)	1(1)		2(2)	(2)	8(57)	1.05(0.92)
남의명예를 존중하라	(1)	(4)	1(3)										1(8)	0.13(0.13)
다투지 마라	(1)												(1)	(0.02)
모든 일에 당황하지마라. 침착			1(4)										1(4)	0.13(0.05)
미신에 빠지지 마라		(1)	1(5)	(2)									1(8)	0.13(0.13)
방해. 신세. 폐를 끼치지 마라	1(1)												1(1)	0.13(0.02)
성실. 충실. 책임	1(1)	1(1)		(1)	1(5)	2(6)	1(1)				(2)		6(17)	0.78(0.27)
소질										2(2)		1(1)	3(3)	0.39(0.05)
시기. 질투. 거짓말 마라	1(1)												1(1)	0.13(0.02)
신체. 건강. 운동	1(2)	1(10)	1(9)	1(23)	(12)	(4)	1(3)	1(9)	1(5)	(3)	(3)	(2)	7(82)	0.92(1.32)
여의. 행의. 자제. 관대	1(1)	2(7)	(1)	3(21)	1(23)			2(4)	(1)	2(3)	1(11)	(1)	12(79)	1.57(1.27)
용기. 진취적. 기상. 담력	1(1)	(1)	1(6)		2(9)	1(3)	1(1)	2(2)	1(1)	1(10)		2(5)	12(39)	1.57(0.63)
위생. 청결. 질병. 전염병	(1)	1(1)	(1)		1(17)		(1)		(3)	(4)			2(28)	0.26(0.45)
음식. 식사	1(1)		(3)		(9)		1(1)	(3)	(1)	(4)			2(22)	0.26(0.35)
의지. 도량. 信義. 自信. 포부				1(6)	2(7)		1(1)					(1)	4(35)	0.52(0.24)
인내. 극기. 인고단련		1(1)	1(1)					1(1)	1(1)	1(1)			5(5)	0.65(0.08)
자립자영. 자신의 일은 자신이		(1)		1(3)	(2)	1(3)	1(4)						3(13)	0.39(0.21)
자선. 덕행. 박애. 동정			1(1)	1(8)	3(16)	2(8)		1(1)	(1)	1(3)	1(9)	(3)	10(60)	1.31(0.97)
정직. 양심. 청렴		1(4)	1(8)	(7)						(2)			2(21)	0.26(0.34)
질서. 정돈. 습관			1(5)	1(4)	(1)							(1)	2(11)	0.26(0.18)
계	11 (17)	12 (68)	11 (72)	16 (141)	13 (158)	8 (58)	7 (13)	10 (24)	8 (24)	8 (50)	4 (36)	4 (55)	112 (716)	1464 (11.53)
기수별계			71 (514)	9.28% 8.28%				41 (202)	5.33% 3.23%				112 (716)	1464 (11.53)

위의 <표1>를 보면 첫째로, 개인생활 덕목이 IV·V기에는 주제수가 112(1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제어(11.53%)는 주제수의 백분율과 비교할 때 단원의 내용을 그만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동교육에 있어 근대적인 자주적 교육의 취지

15) 이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분석표’는 연구자가 직접 수신서를 읽으며 철저하게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 사용된 ‘총주제수’는 I~V기까지 합하여 765단원이며, ‘주제어’는 6208개이다. 여기에서 I~V기의 주제수(어)의 총계로 한 것은 모든 기수에서 IV~V기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나 위치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IV~V기의 주제어의 도출은 주제수의 제목이 교과내용에 나온 것으로, 이 주제어가 수신서에 얼마나 나타나는가에 따라 교과내용의 지배와 시기별 주제수에 들어있는 이태올로기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가 많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IV기의 주제수(어)가 71(514)에서 V기의 41(202)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수신교육이 아동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심성의 육성에 두는 교육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로, IV·V기에는 「공부」보다는 「용기」, 「진취적 기상」, 「규칙」, 「규율」, 「시간」, 「약속」 등이 보다 많은 주제수를 내포하고 있어, 국가나 사회가 통제하기 좋은 인간의 육성과 동시에 호전적인 인간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IV·V기에서 「근면(근로)」, 「검약(절제, 물건의 소중함)」, 「신체(건강)」, 「성실(충실, 책임)」 등의 다수의 주제어는 부국강병의 배후에 자리 잡은 ‘勤勞主義的 정신’의 함양과 그 밑바탕에 「성실」, 「인내」, 「극기」, 「정직」 등 ‘체념주의적인 덕목’을 배치함으로써 신민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부지불식간 각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자선」, 「덕행」, 「박애」, 「생각」, 「궁리」, 「창조」의 주제수에서 자주적인 단원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것일 뿐 내용은 반자주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것도 이전시기에 비해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이바지한 여러 충신이나 학자 등과 같은 뚜렷한 인물을 내세워 개정편찬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V기의 편찬방침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생각되며, 이 모두는 결국 국가와 천황을 위한 항목으로 귀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1>에 열거된 개인생활 덕목들은 각기 개인생활 자체의 개선이나 도덕적 심성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생활덕목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생활의 자주적인 덕목들이 다른 생활덕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국가 생활이나 천황제의 토대가 되는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가정생활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3-1에서 살펴 본 개인생활의 덕목들은 가정생활덕목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가정의 **은과 孝 윤리**와 연결되고, 가정의 **은**¹⁶⁾과 **孝**는 천황과 국가에 대한 **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가족국가관**¹⁷⁾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신서 <V-(권 2)-4>의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幕末의 스키 유리노스케(杉百合之助) 가문의 일화를 통해 두 아들의 씩씩한 신체단련과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조상숭배나 황실의 가르침을 통해 국체에 근거한 황실중심주의와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효’를 연결¹⁸⁾지어 나가고 있다.

16) 川合貞一.(1943), 『恩の思想』, 東京堂, p.3 참조

17) 親見吉治.(1937), 『家族主義的教育』, 東京: 六芳社, p.120

18) 일본의 경우 사회의 가부장제적 구조에 의거하여 권력이 정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데올로기적 표현은 ‘家族國家觀’이고, 이것은 국가를 ‘家의 연장·확대로서 볼 수 있으며, 그 정점에 위치해 있는 천황은 大家長이 되고, 국민은 ‘臣民’(천황의 家臣)이 됨과 동시에 천황의 자식(赤子)이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가족국가관이 확립된 것은 천황제가 자기권력을 형성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가 되었다. 麻生誠(1985), 日本學大全集3, 『近代化と教育』,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p.91 참조

...(초략)...그 날, 무사히 궁성참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의 일이었다. “우메타로는 무엇을 기원했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었다. “예,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고 영주님이 무사하시길 원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면 다이지로는.” “저도 제일 먼저 황실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일본인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진정한 일본국민이란 어떤 것이냐?”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살려 목숨을 바쳐 폐하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일본 국민이다 라고, 다마키(玉木)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 그것을 신께 맹세했다는 것이냐.” 유리노스케는 내 자식 다이지로가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마음속으로 느꼈다. 다이지로는 누구인가? 후에 도라지로(寅次郎)로 改名하여 삼촌인 요시다 다이스케(吉田大助)의 가문을 이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선생¹⁹⁾으로 추앙받게 된 그 사람이다. <V-(권2)-5> 「父と子」

이처럼 쇼와기의 가정이나 가족에 나타난 덕목들은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孝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중심도덕임과 동시에, 1차적 孝를 2차적인 忠孝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다른 덕목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다음의 <표2>를 통해 보기로 한다.

<표2> <IV·V기 ‘가정생활덕목’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구분 \ 시기	제 IV 기						제 V 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주제어(上)	주제어(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주제어)	백분율
가정화목	1(1)						1(1)	7(7)				1(3)	3(12)	0.39(0.19)
先祖 숭배, 조상		1(5)		2(13)	1(3)	1(33)			1(1)	2(4)	4(26)	3(8)	3(8)	0.39(1.39)
원(은혜)		1(1)	1(1)		1(1)				1(1)				4(4)	0.52(0.05)
친족(애)		1(2)					1(1)						1(3)	0.13(0.05)
형제(애)	1(3)	1(2)	2(2)	1(4)	1(10)	6(6)	1(2)	5(5)	1(10)			4(4)	6(48)	0.78(0.77)
효도 효행	3(6)	1(10)	1(13)	1(7)	2(30)	1(12)	1(4)	2(23)	5(5)	6(6)		8(8)	12(124)	1.57(2.0)
계	5(10)	5(20)	2(16)	2(13)	4(54)	2(5)	3(8)	2(35)	3(17)	8(8)	4(4)	1(4)	29(27)	3.79(4.4)
기수별계	20(164)		261%(264%)				9(113)		113%(182%)				29(27)	3.79(4.4)

위의 <표2>에서는 첫째로, 가정생활덕목의 주제수(29, 3.79%)와 주제어(277, 4.46%)에 나타나듯이 다른 생활덕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IV기까지는 「형제」, 「효행」, 「친구」의 주제수와 주제어가 비슷한 양상을 띠어 전통윤리에 입각한

19) 스기 유리노스케(杉百合之助, 1830-1859)는 초슈(長州)의 번사(藩士)로 에도 시대의 존황파 지사·교육자이다. 그는 5세 때 숙부의 양자가 되어 요시다 가문을 계승했으며,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의 저서 『신론』(新論)을 읽고 아편전쟁에 대한 전망을 알게 되면서 시야를 넓혔다. 그는 이듬 해 에도로 가서 사상가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에게서 서양학문을 배웠다. 이후 그는 사설학교인 쇼카 손주쿠(松下村塾)를 열고 하급무사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들은 점차 초슈번(長州藩)의 중심인물로 성장했고, 이후 막부를 전복시키고 왕정복고를 실현한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도덕적 가치관을 보여주지만, V기의 주제수는 저학년을 제외하고 전혀 없거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근대적 가족주의적인 생활이 태평양 전쟁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파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정생활덕목의 약화는 국가생활덕목이나 천황제 관련 덕목의 증가로 인한 이유도 결정적인 작용을 미친 결과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국가생활이나 천황제 지배체제는 가정이나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음을 의미한다. 둘째, IV·V기에 「先祖」에 대한 항목이 계속 꾸준히 나타난 것은 가정과 皇室家를 연결지어주는 항목으로써 천황에 대한 충성을 유발시키려는 국체사상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항목들의 증가는 반근대적인 봉건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이며, 따라서 가정생활덕목은 개인생활덕목처럼 근대적인 가정의 약화와 이에 상반되는 국가나 천황제의 고취가 작용을 미친 것이며, 또 가정에서의 孝 등의 강조가 근대적 인간관의 가치실현의 장이나 덕목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3. 학교생활의 계몽성과 비계몽성

학교생활덕목에 나타난 근대적 인간교육은 앞에서 살펴 본 개인·가정생활덕목과 마찬가지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어린이의 도덕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생활의 확장이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난다. 다음 <V-(ヨイゴトモ(下))-20>의 「착한 어린이」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수신서는 근본적으로 선생에 대한 존경을 통해 상하질서를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천황과 신민 등의 가교역할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

우리들은 이번에 모두 다 3학년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켜, 착한 어린이가 되고자 유념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께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황폐하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천황폐하를 모시는 일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여 이 좋은 나라를 모두 함께 더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교의 종업식이었습니다. 상장을 받아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기뻐하시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착한 어린이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ヨイゴトモ(下))-20> 『ヨイ子ドモ』

위의 예문과 더불어 사열한 모든 학생들 앞에서 상을 받은 삽화를 보여줌으로써, 선생님의 가르침은 가정이나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계몽역할이었다. 이러한 관계가 다른 주제수(어)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다음 <표3>를 통해 보기로 한다.

<표3> <IV·V기 ‘학교생활덕목’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구분 \ 시기	제 IV 기						제 V 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카타나(上)	카타나(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주제어)	백분율
교실과 운동장														
놀이														
방학	1(1)						1(1)						2(2)	0.26(0.08)
복습														
前年 스승존경	1(2)	6(6)	1(7)	4(4)		1(14)	1(1)	7(7)	6(6)	4(4)	1(15)	1(19)	6(65)	0.78(1.05)
스승		1(2)						1(3)					2(5)	0.26(0.08)
친구 교우	1(1)	1(15)	1(3)	5(5)	1(19)	3(3)	1(1)					2(2)	5(39)	0.65(0.63)
학교	1(3)	1(11)	1(19)	1(10)		1(9)	1(12)	1(18)	7(7)	5(5)	5(5)	9(9)	5(88)	0.65(1.42)
계	4(7)	3(34)	3(39)	1(19)	1(19)	1(16)	4(45)	2(218)	1(13)	9(9)	1(10)	1(130)	20(199)	2.61(3.21)
가수별계	12 1.57% (114) 1.88%						8 1.05% (85) 1.37%						20(199)	2.61(3.21)

위의 <표3>에서는 먼저, 모든 생활덕목 중에서 가장 낮은 주제수(20, 2.61%)와 주제어(199,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생활덕목과 마찬가지로 V기에 이르러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전시기에 나타난 바 있으며, 아동에게 필요한 덕목인 「교실과 운동장」, 「놀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놀이나 학습외의 활동은 아동의 덕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덕목의 결여는 근대적인 인간교육의 결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승존중」과 「학교」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주제수(어)가 모두 감소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V기에서 저학년에 「스승존중」의 항목이 골고루 나타난 것은 학교생활에 있어 선생이나 스승의 위치를 통해 존황주의와 국가주의를 고취 내지는 계몽시키려는 수단의 작용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수신서의 내용에서는 사회에 공헌한 위대한 학자들의 등장을 통해 공익이나 국가, 천황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방향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3-4. 사회생활의 시민성과 반시민성

수신서에는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선」, 「공익」, 「우리향토」, 「이웃사랑」 등의 덕목이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시민사회에 적합한 덕목을 제시하여 반복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충량한 신민의 자발성을 기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덕목은 또한 근대의 시민이 가져야 할 의무로 나타나는데, 다음 <IV-(3)-20> 「자선」의 경우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옛날 츠루오카(鶴岡)에 스즈키 이마에몬(鈴木今右衛門)이라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자기 집의 돈이나 쌀·보리 등을 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굶어죽는 사람이 있으므로 논이나 밭을 비롯해 집안의 가재도구까

지 팔아 많은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마에몬의 부인도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옷 등은 대부분 팔아 남을 도왔습니다만, 나들이옷이 아직 두벌만 남았으므로 그것도 팔아치우려 하였습니다. 이마에몬이, “외출하는데 옷이 한 벌 정도 있는 편이 좋을 거요. 그것만은 남겨두는 게 어떻소?”라고 말하자 부인은, “입을 옷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입을 옷이 없어져 밖에 나갈 수 없게 되면 꼬치나 비너도 필요 없습니다. 남김 없이 팔아 더욱 많은 사람을 도읍시다.”라며 나들이옷과 함께 꼬치와 비너도 팔아버렸습니다. 이마에몬 부부에게 열두 살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딸에게 “너는 솜옷을 두벌 겹쳐 입을 따뜻하게 있지만, 저 아이는 홑옷 한 장으로 떨고 있다. 한 장 주면 어떨까?”라고 말하자, 딸은 곧 입고 있던 좋은 쪽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내 몸을 꼬집어 남의 이품을 알라.** <IV-(3)-20> 「慈善」

사회생활덕목에서는 위의 「자선」의 경우에서 보듯이 타인에 대한 자선이나 봉사 등이 극단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맹목적이며 일방적인 정신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봉사와 헌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생활덕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표4>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4> <IV·V기 ‘사회생활덕목’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구분	시기	제IV기						제V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3차문(上)	3차문(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주제어)	백분율
공공시설건설															
공인의 심득(의무)															
공약(정)			(4)	(13)	(14)	(15)	(15)					(22)	(15)	7(28)	0.92(0.45)
생명을 소중히 하라	(10)		(13)											2(4)	0.26(0.06)
습득물															
어른에게 친절 하라															
우리고장(고향)					(12)									1(2)	0.13(0.03)
이웃사람	(10)	(10)	(14)				(1)	(2)		(1)				4(10)	0.52(0.16)
인간은 만물의 영장															
人身의 자유															
자기물건과 타인물건	(22)													2(2)	0.26(0.03)
주인과 하인															
직무, 직업															
협동, 협의, 共同		(1)	(28)	(5)	(5)	(17)	(1)		(13)	(13)	(3)	(3)		7(33)	0.92(0.63)
계		4 (4)	2 (6)	5 (18)	2 (11)	1 (10)	2 (12)	2 (2)	2 (2)	1 (1)	1 (2)	2 (2)	1 (5)	23(85)	3.01(1.37)
기수별계		16 209 (61) (0.93)%						7 0.92 (24) (0.33)%				23(85)	3.01(1.37)		

위의 <표4>에서 보듯이 첫째로 IV·V기에서는 특히 IV기를 제외하고 V기에서 시민

사회윤리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전시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근대 시민생활에 관한 덕목도 「공익(정)」, 「협동」, 「협의」, 「공동」, 「이웃사랑」 등의 덕목이 국가와 천황에 대한 봉사적 성격으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듯 모든 항목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덕목들은 단지 시민사회의 공익성이 아닌 국가와 천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공익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민사회윤리가 점차 퇴조한 것은 국가생활과 천황제에 대한 덕목의 증가로 인한 감소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근대나 근대인의 육성이 서구와 같은 근대 시민이나 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3-5. 국가생활의 국민성과 신민성

수신서에 나타난 국민성은 다름 아닌 신민이 가져야 할 덕성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 주로 「충의(군)」, 「충군(효)」, 「애국」 등의 덕목을 통해 집중적으로 가르쳐졌다. 이 장에서 언급한 국민성은 앞장에서 살펴본 시민생활의 확장된 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저학년에서는 개인의 규칙이나 질서 등을 가르치다가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회의 규칙이나 법령 그리고 국가의 헌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며, 멸사봉공의 황국신민의 도리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로 <V-(권4)-18>의 「제국헌법」을 찾아보자.

대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이 대일본을 통치하시기 위한 나라의 규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메이지 천황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에 의거해 황국의 융성과 신민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시는 천황의 마음에서 이 헌법을 정하시어, 메이지 22(1889)년의 기원절 날에 발표하시었습니다. 이 때 신민 모두가 천황의 인과 덕의 정도를 우러러 받들어, 상하의 기쁨은 나라에 가득 넘쳤습니다. 헌법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대일본제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국체의 근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민에게 국가의 정치에 가담하는 권리를 부여해 법률에 의해 신민의 신체·재산 등을 지키고, 신민은 병역·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천황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데에 국사에 관해서는 국무대신을 두시어 보필하게 하시고, 법률이나 예산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 정하시고, 재판은 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중략)…헌법과 함께 정하신 황실전범에는 황위계승·신기(神器)의 전승·즉위 등 황실에 관한 중요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제국의 신민은 항상 황실전범 및 대일본제국 헌법을 존경하고 이것을 잘 지켜서 천황이 하시는 일을 도와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V-(권4)-18>「帝國憲法」

이와 같이 국가생활덕목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성의 함양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국가통치체제에 적합한 신민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그러면 다음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생활덕목의 종류에 따라 신민육성의 강조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5> <IV·V기 ‘국가생활덕목’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구분	시 기	제 IV 기					제 V 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3차단 (上)	3차단 (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교육					(2)	(4)	1(3)					(2)	(7)	1(43)	0.13(0.69)
국교 국방							1(7)						(1)	1(8)	0.13(0.13)
國旗 國歌				1(23)	1(16)				(1)	1(13)	1(7)	(2)	(3)	4(65)	0.52(1.05)
국민의 의무. 국민의공부							3(15)					(2)	(3)	3(20)	0.39(0.32)
국민계병(國民皆兵)													1(3)	1(3)	0.13(0.05)
국법. 헌법. 법령						1(9)	1(14)				1(1)	1(11)	4(35)	0.52(0.56)	
국운의 발전. 거국일치						1(5)	2(2)						(2)	3(9)	0.39(0.14)
君臣 군인 병사												1(24)	1(24)	1(16)	0.13(0.39)
납세. 조세						(5)	(5)						1(16)	1(16)	0.13(0.26)
농업. 공업															
대일본제국. 우리나라. 일본국				(9)	(12)	1(4)	(5)		1(11)	1(25)	2(55)	2(46)	(37)	7(296)	0.92(4.77)
멸사봉공												5(1)		5(1)	0.65(0.02)
병역							(6)		1(2)				(3)	1(11)	0.13(0.18)
산업						1(6)	(6)					(1)	(4)	1(17)	0.13(0.27)
선거. 의원선거							(9)					1(6)	(4)	1(19)	0.13(0.31)
인물										1(4)	1(10)	3(7)	5(21)	0.65(0.34)	
日本刀												1(24)	1(24)	1(16)	0.13(0.39)
전쟁. 대동아전쟁					(6)	(34)	(24)		(8)	(6)	(11)	(11)	(100)	(1.61)	
朝鮮						(5)	(4)						(9)	(0.14)	
청소년 학도												(2)	1(10)	1(12)	0.13(0.19)
충성. 충의(군). 애국		1(1)	1(1)	2(35)	1(44)	5(128)	9(207)		2(2)	5(5)	4(78)	1(13)	1(16)	9(86)	1.18(1.39)
계		1(1)	1(1)	2(35)	1(44)	5(128)	9(207)		1(12)	5(50)	4(78)	11(87)	10(176)	50(819)	6.54(13.19)
기수별계				19(416)	2.48%(6.70%)				31(403)	4.05%(6.49%)				50(819)	6.54(13.19)

앞의 <표5>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먼저 IV·V기에는 주제수(50, 6.54%)와 주제어(819, 13.19%)의 기록에서 보듯이 ‘超國家主義的’ 혹은 ‘軍國主義的’ 국민성을 강조한 교재중심과 도덕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IV기의 주제수가 V기 교과서의 개편으로 인해 종래의 27과에서 20과로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V기에 31개의 주제수로 늘어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접어들어 이후 1941년에 개정된 수신서가 전시체제에 적합한 멸사봉공의 황국신민 만들기를 통해 국민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데올로기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성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이들 덕목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수와 주제어를 차지하고 있는 「大日本帝國」이나 「우리나라」, 「충성(의)」, 「애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IV·V기에서는 충효의 개념이 씩이라는 일변도로 이어지고, 더구나 충군애국 등의 강조가 보다 실천적이며, 인물중심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형의 격조 높은 문구의 사용 속에 문학적, 시적감흥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나 「대동

아전쟁』의 주제어의 높은 비율과 V기의 「청소년학도」, 「멀사봉공」과 관련된 주제수의 높은 사용의 배경에는 초국가주의적 상황에서 태평양 전시체제로 나아가면서 수신교육이 국가목적에 합당한 도덕으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V기에는 국가가 이미 2차 세계대전(1939~1945)에 들어선 이후 V기의 개편이 이루어졌기에 군국주의가 절정에 이른 파시즘적인 도덕의 내용과 교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6. 천황주의와 신민적 국민

쇼와기의 수신서는 ‘팔굉일우’와 ‘만세일계’를 중심으로 한 국체사상의 강화와 신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체사상의 신성화에 대한 실천적 강화는 수신서를 통해 봉건적 유교윤리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천황제 지배체제 하의 아동의 신민 만들기도 메이지기의 순량한 신민에서 충량한 신민으로 이어졌으며, 쇼와기에는 멀사봉공의 황국신민이라는 일사분란한 국민성이 요구되었고, 이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다해야 할 자동화된 육성교육이었다. 이렇게 국체에 적합한 황국신민육성교육은 다음 <표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6> <IV·V기 ‘천황주의’ 관련 주제수(주제어) 빈출도>

시기 구분	제 IV 기						제 V 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권I (上)	권I (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국체				(1)	(1)	(2)				(1)	(1)	(3)	(9)	(0.14)
교육칙어				(1)	(2)	3(15)				(2)	(2)	(11)	3(33)	0.39(0.53)
기원절		1(2)	(3)	(2)		(1)		1(2)		(2)		(1)	2(13)	0.26(0.21)
대장제												1(7)	1(7)	0.13(0.11)
민체							1(5)						1(5)	0.13(0.08)
명치절			1(6)	(1)				(4)					1(11)	0.13(0.18)
명치천황				1(5)		(10)		(2)		1(4)	(5)	1(3)	3(29)	0.39(0.47)
신년														
臣民				(16)	(11)	(29)			(5)	(12)	(15)	(29)	(117)	(1.88)
신사. 신궁. 神		1(4)	1(4)	1(25)	(19)	1(10)		2(7)	3(7)	1(27)	1(34)	(7)	8(184)	1.05(2.96)
야스쿠니신사														
요시히사친왕				1(10)		(1)				1(9)	(1)	(2)	2(23)	0.26(0.37)
착한어린이. 좋은일본인. 소국민	1(1)	1(4)	1(5)	1(7)	1(9)	(3)	1(1)	1(6)	1(5)	1(9)	(5)	(23)	9(78)	1.18(1.26)
천장절	1(1)		(3)	(1)			1(1)	(1)		(1)			2(8)	0.26(0.13)
천황폐하		1(11)	(16)	(34)	(34)	(57)		1(20)	1(13)	(41)	(19)	1(29)	4(274)	0.52(4.41)
축일 大祭日			(12)	1(38)		(10)	1(1)	(3)	(6)	2(31)	(7)	1(14)	5(122)	0.65(1.97)
황실 황궁			(2)	1(9)	(10)	1(32)				1(3)	(8)	(13)	3(77)	0.39(1.24)
황(대)후 폐하			1(5)	(1)	1(9)	(8)			1(4)	(1)	1(8)	(2)	4(38)	0.52(0.61)

구분 \ 시기	제 IV 기						제 V 기				계			
	권I	권II	권III	권IV	권V	권VI	권I (上)	권I (下)	권I	권II	권III	권IV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계	2 (2)	4 (21)	4 (66)	6 (151)	2 (95)	5 (178)	4 (8)	5 (45)	3 (70)	7 (143)	2 (105)	4 (144)	48 (1,028)	6.27 (16.55)
기수별 계	23 3.01% (513) (8.26)%						25 3.27% (515) (8.30)%				48 (1,028)	6.27 (16.55)		

위의 <표6>에서 보듯이 첫째로, ‘천황주의’덕목은 IV·V기에 주제수가 48(6.27%), 주제어(1,028, 16.55%)로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6.55%의 주제어는 모든 생활덕목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천황주의 관련 덕목이 모든 교과내용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에 「神社」, 「좋은 일본인」, 「천황폐하」에 대한 주제수나 주제어는 더욱 뚜렷한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주며, 이것은 교육칙어의 목표와 방향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수신도덕을 통해 천황제 이데올로기로써 국민적 통일을 꾀하고 있는 결과이다. 더구나 국제사상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도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에서 천황주의의 고취가 최고조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황폐하」의 덕목이, 다른 생활덕목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超國家主義的 전시상황에서 神國일본과 現人神천황에 대한 교육의 개편과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천황주의’는 다른 덕목이나 다른 단원과 계속 연결되어 나타나며, 교과내용에 있어서도 천황에 대한 이미지의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식의 묘사가 뚜렷하고, 천황의 성덕과 인자한 모습에다 IV기부터 교과서가 컬러로 바뀌어 친근감을 더욱 유발시켜 심리적인 충격과 영향을 주고 천황에 대한 영웅성과 神聖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신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본래의 수신교육이 갖는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유교적 전통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천황과 신민의 관계를 더욱 각인시키고, 천황의 존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신서는 ‘천황서’라 할 수 있으며, 소학교는 천황주의 이데올로기의 학습장이라 할 수 있다.

4. ‘좋은 일본인’적 기호를 통한 ‘황국신민 만들기’

원래 국정수신서의 간행목적은 어린이의 도덕적 가치관과 올바른 심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당시 근대시민사회의 윤리에 적합한 실천적인 인간성 형성도 기본방침의 하나였다. 그러나 수신서의 취지와 목적은 V기까지 4번의 개편과정을 통해 초군국주의 내지는 파시즘적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더욱 농후해졌다. 이러한 수신서의 왜곡된 의도를 반영해 주는 것은 「좋은 일본인」이라는 제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좋은 일본인이 되려면 언제나 천황폐하·황후폐하의 은덕을 기리고, 황대신공을 존경해 받들며, 충군애국의 마음을 변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기원절·천장절·메이지절 등 축일의 내력을 알고, 국기를 소중히 하는 것도 일본인으로서 중요한 소양입니다. 부모에게는 효행을 다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학교를 사랑하고, 친구들은 서로 사이 좋게 도우며, 이웃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언제나 정직하게 가지고,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도 예의를 바르게 하며, 인내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과 협동하여 서로 도우며, 또 평소에는 검약을 지키고, 자신하는 마음도 깊게 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의 폐가 되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정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공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건강에 주의하여 부모를 안심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학문에 힘쓰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물건을 잘 정돈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일하는데 허둥대지 말며, 만일의 경우에는 뭇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평소부터 길러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고, 자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천황폐하를 위해 힘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좋은 일본인이 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의를 행실로 나타내는 데는 모두 진심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IV-(3)-27> 「よい日本人」

여기에서 ‘좋은 일본인’적 신민은 무엇보다도 교육칙어의 의도와 목표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심성의 鍊成에 따른 수신을 지닌 아동이 되는 것이었다. 「좋은 일본인」의 항목이 IV기 6학년과 V기의 5, 6학년을 제외하고, 각 기수별 마지막 장에 배치되어 나타남으로써 모든 덕목을 총괄·완성짓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IV기에서 제외된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교육」 및 「教育勸語」를 넣어 「좋은 일본인」을 대신하여 종결짓고 있고, V기에서는 ‘좋은 일본인’적 신민의 역할이 ‘황국신민’으로서 황국을 위해 실천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하나의 예를 <V-(5)-17>의 「사해(よもの海)」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대일본은 道の 나라이고 義의 나라입니다. 세계동포들과 우의를 맺어 일치협력하며 함께 번영하고 함께 즐기는 세계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신은 이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무(神武)천황은 아마토(大和)의 가시하라(橿原)에 수도를 정하셨을 때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황조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마음을 널리 넓혔습니다. 역대 천황은 이 마음 아래 황화(皇化)를 널리 사해에 베푸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중략)…우리 황국신민은 천황의 마음을 생각해서 단호하게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동아전쟁은 그 예입니다. 대일본의 진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은 자를 혼내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고 세계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킴을 확고히 하고, 황국의 위력을 알리며 도의를 꾀뚫어야 합니다. 위력은 이제 멀리 바다를 건너 빛나고 있습니다. 나라 태초부터의 정

신이 잇달아 나타나 동아시아의 세계는 낯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道를 가진 일본에 태어나 세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로서 평소의 행동을 조심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한집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삽시다. <V-(5)-17> 「四海」

위의 예에서는 세계평화의 정신을 가진 일본역사의 유래와 계획 그리고 황국의 위력으로 八紘一宇의 세계를 재패하는데 황국신민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IV기까지 국가주의적인 신민의 육성이 V기에서는 팔굉일우에 근거한 ‘황국신민’으로서 멸사봉공의 극단적인 충성과 전시체제하의 참여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파시즘적 체제하에서 이전의 ‘좋은 일본인’적 신민의 각오가 ‘황국신민의 각오’로 이어지고 있는데, 황국신민 만들기에 대한 생활덕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생활덕목을 총 정리한 <표7>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7> <IV·V기 각 생활덕목관련 주제수(주제어) 종합 비교표>

시기 생활영역	제IV기		제V기		주제수(765) 주제어(6,208) 총계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주제수 (주제어)	백분율(%)
개인생활	71 (514)	9.28 (8.28)	41 (202)	5.36 (3.25)	112 (716)	14.64 (11.53)
가정생활	20 (164)	2.61 (2.64)	9 (113)	1.18 (1.82)	29 (277)	3.79 (4.46)
학교생활	12 (114)	1.57 (1.83)	8 (85)	1.05 (1.37)	20 (199)	2.61 (3.21)
사회생활	16 (61)	2.09 (0.98)	7 (24)	0.92 (0.39)	23 (85)	3.01 (1.37)
국가생활	19 (416)	2.48 (6.70)	31 (403)	4.05 (6.49)	50 (819)	6.54 (13.19)
천황통치	23 (513)	3.01 (8.26)	25 (515)	3.27 (8.30)	48 (1,028)	6.27 (16.56)
총 계	161 (1,782)	21.04 (28.70)	121 (1,342)	15.83 (21.62)	282 (3,124)	36.86 (50.32)

‘황국신민 만들기’에 대한 수신서의 의도는 위의 <표7>에서 보듯이, 각 덕목간의 차이와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수신교육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인 올바른 인간관이나 가치관의 함양덕목이 정반대의 논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가정·학교·사회생활덕목에 있어 주제수(어)가 IV기에서 V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생활과 천황통치의 덕목에서 현격하게 주제수(어)가 증가하는 것은 쇼와기의 파시즘적인 지배체제하에서 일방적인 국민성의 작용이 공고히 되었음을 의미하며, 일사분란한 전시체제하의 ‘황국신민 만들기’의 육성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국신민에 해당하는 주제수(어)도 수신내용에서는 君臣, 皇民, 臣民, 兵士, 靑少年學徒 등 청·장년층의 용어로 대체사용되어 확대되기 때문에, 수신서가 단순히 소학교의 아동만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체제하에서 국민육성은 국민의 연성의 대상인 아동으로부터 전국민으로까지 총체적인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의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도덕교육의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의 쇼와기 전시체제하에서 국민육성이 수신교육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IV·V기 수신서는 근대일본의 국민성 형성에 있어 국가주도의 국민교화가 일방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아동의 사유와 행동체계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으며, 수신서가 일본의 정신과 국민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수신서는 근대일본의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강렬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생활덕목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개인생활덕목’에 나타난 근대적인 인간교육은 자주적인 덕목의 이면에 국가관이나 천황제에 귀결되는 규율적인 신민적 가치관과 덕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근면(근로)」, 「검약(절제)」, 「성실(충실, 책임)」 등의 항목에서 나타나며, 근로주의적 정신을 강화하는 국민육성의 덕목일뿐만 아니라 체념적이고 순종적인 교화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가정생활 덕목은 「효」나 「先祖」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족국가관에 해당되는 국체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적인 기초적 덕목이었다. 셋째로, 학교생활덕목은 근대적 시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적인 근대적 덕목이나 교육보다는 국가와 천황을 위한 계도와 인간양성의 덕목이었다. 넷째로, 시민사회윤리의 퇴조현상은 시민사회의 본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이것은 국가생활덕목에 포함되어 나타나거나 개인이나 가정, 학교생활을 국가나 천황제로 이끌어주는 가교역할의 교육이었다. 다섯째로, IV·V기 修身書는 超國家主義의 혹은 軍國主義의 국민성을 강조한 교재중심과 도덕교육의 강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도덕교육의 변화는 황국신민사상을 형성하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파시즘적 교육의 통제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천황주의’ 덕목은 IV·V기수신서의 본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교육칙어의 목표와 방향대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주입시켜 국민적 통일을 꾀하는 ‘황국신민 만들기’였다. 따라서 수신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본래의 수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며, 쇼와기의 수신교육은 근대천황제에 근거한 일사분란한 국민성의 집약을 통해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서로 유기적인 질서체계를 이루어 황국의 사명을 달성해 나갔으며, 여기에 수신서가 모든 교과서의 최정점에 위치하여 국민성의 통일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육성의 일방적 통일을 향한 덕목의 배치와 내용은 수신교육의 본래의 의도와 인간교육의 방향과는 달리 이중적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적 특징은 덕목가

운데 주제수에 나타난 피상적인 덕성함양이 아닌 주제어나 교과내용에서 ‘좋은 일본인’적 ‘황국신민 만들기’라는 일사불란한 국가관과 국민성을 강화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텍스트

- 文部省.(1990), I 期 『尋常小學修身書』, 1~6學年, 日本東京:大空社復刻
- 文部省.(1990), II 期 『尋常小學修身書』, 1~6學年, 日本東京:大空社復刻
- 文部省.(1990), III 期 『尋常小學修身書』, 1~6學年, 日本東京:大空社復刻
- 文部省.(1990), IV 期 『尋常小學修身書』, 1~6學年, 日本東京:大空社復刻
- 文部省.(1990), V 期 『ヨイコドモ』(上~下) · 『初等科修身』(1~4권), 日本東京:大空社復刻
- 文部省.(1936), 『尋常小學修身書』 卷一~二, 教師用, 東京書籍
- 文部省.(1942), 『初等科修身』 一~四 教師用, 東京書籍

2) 논문 및 문헌

- 이병담.(2003), 「일본 明治·大正期」의 수신교과서 연구-국민의 의식형성으로서 천황제와 근대적 어린이-, 『일본문화학보』 11집, pp.283~304
- _____(2004), 「일본 明治·大正期」의 수신교과서 연구-국민성 형성의 이데올로기와 수신서-, 『외국어교육』, 11집2호, pp.443~5
- _____(2004), 문철수공저, 일제강점기의 『普通學校修身書』 연구-朝鮮總監府의 식민지 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일어일문학』, 제24집, pp.231~50
- _____(2004), 문철수공저, 近代 日本의 初等 『修身』教科書 研究-修身教育의 變遷課程과 特質(1)-, 『일본어문학』, 제23집, pp.283~304
- _____(2005), 근대일본 아동의 탄생과 臣民 만들기-『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25집
- _____(2005), 근대일본의 실업교육 양상과 근로주의- 『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26집, pp.267~90
- _____(2005), 일본의 근대교육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봉건주의-『尋常小學修身書』 I · II 기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29집, pp.591~620
- 麻生誠.(1985³), 日本學大全集3, 『近代化と教育』,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p.91
- 新見吉治.(1937), 『家族主義的教育』, 東京: 六芳社, p.120
- 川合貞一.(1943), 『恩の思想』, 東京堂, p.3
- 吉田熊次.(1930), 『教育勅語釋義』, 東京: 弘道館, p.2
- 南博.(1994). 『日本人論』, 日本東京: 岩波書店, pp.13~183

- 櫻井哲夫.(1993). 『近代の意味』-制度としての學校・工場-, 日本東京:NHKブックス, pp.11~203
- 山本信良.(1973). 『近代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 日本東京: 新泉社, p.107
- 新明正道.(1948). 『國民性の改造』, 日本東京: 有恒社,
- 中村紀久二.(1990). 『復刊 國定修身教科書 解説』, 日本東京: 大空社, p.68
- 仲新・海後宗臣.(1969). 『近代日本教科書總説 解説篇』
- 村井實.(2000). 『近代日本の教育と政治』, 日本東京: 東洋館出版社(株), pp.1~50
- 八木公生.(2001). 『天皇と日本の近代』上・下, 日本東京: 講談社,
- 八木秀次監修.(2002). 『明治・大正・昭和...親子で讀みたい精選尋常小學校修身書』, 日本東京:
小學館文庫, pp.399~400
- 平田宗史.(1991). 『教科書でつづる近代日本教育制度史』, 日本:北大路書房, pp.1~122



要 旨

本研究は昭和期の戦時体制下で國民育成が修身教育を通じてどんなに行われたのかをよく見るのにある。Ⅳ・Ⅴ期の修身書は近代日本の國民性形成において國家主導の國民教化が一方的で体系的な形態の中から組織的・繰り返的に成り立ったから、当時兒童の思考と行動に大きな作用をしたし、修身書が日本の精神と國民性を作ったと思う。修身書は強烈な支配イデオロギーとして影響を發揮したし、次のような生活徳目に對する分類と分析を通じ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第一に、‘個人生活徳目’に現われた修身教育は自主的な徳目の後面に國家觀や天皇制に歸結される規律的な臣民的な価値觀と徳目が土台を成している。これは「勤勉(勤勞)」、「儉約(節制)」、「誠實(充實・責任)」などの項目で現われて、勤勞主義の精神を強化する國民育成の徳目であるだけでなく諦念的・従順的な教化の徳目と言える。二番目で、‘家庭生活徳目’は「孝」と「先祖」の場合で見ると、家族國家觀に当たる國體思想を植えてくれるための手段的な基礎的徳目だった。三番目で、‘學校生活徳目’は近代的市民を悟らせるための啓蒙的な近代的徳目や教育がなく、國家と天皇のための啓導と人間養成の徳目だった。四番目で、‘市民生活徳目’は市民社會の本來の価値觀を植えてくれようとするのではなかった。五番目で、Ⅳ・Ⅴ期の修身書は超國家主義的あるいは軍國主義的な國民性を強調した教材中心と道德教育の強化だった。これは皇國臣民思想を形成する強壓的・畫一的なファシズム的教育の統制につながった。最後に、‘天皇主義’はⅣ・Ⅴ期修身書の本流を形成することで、「教育勅語」の目標と方向どおり天皇制イデオロギーを徹底的に注入させて國民的統一をはかる‘皇國臣民作り’だった。したがって修身書では子供たちのための本來の修身教育の意味と価値を喪失し、近代天皇制に根據した滅私奉公の國民性を通じて、個人と家庭、社會と國家がお互いに有機的な秩序体系を成して皇國の使命を果たして行ったし、ここに修身書がすべての教科書の頂点に位して國民性の統一を形成して行ったことを分かる。このような一方的な國民育成を向けた徳目の配置と内容は二重の形態で現われた。これは主題數やキーワードそして教科内容で分かったし、‘良い日本人’的記号として、‘皇國臣民作り’だったし、國家支配体制に相應しい國民育成だった。

キーワード：家庭生活, 個人生活, 國家生活, 教育勅語, 近代的 兒童, 社會生活, 修身書, 臣民, 天皇主義, 學校生活, 皇國臣民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590-170) 전북 남원시 광치동 720 서남대 교양교직과

電 話 : 063-620-0058/019-493-6654

e-mail : lbd6654@hanmail.net